中國語文學 第73輯(2016. 12) 183-209쪽

조선 중기 성리학자 申欽의 和蘇詩

류 소 진*

<目 次>

Ⅰ. 서 론
Ⅱ. 간접적 和蘇詩
Ⅲ. 직접적 和蘇詩
Ⅳ. 결 론

Ⅰ. 서 론

北宋 문인 蘇軾(字 子瞻, 號 東坡, 1036~1101)은 문학가로서뿐만 아니라 예술가나 학자로서도 발군의 재능을 발휘한 불세출의 인물로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1] 또한 소식의 시문집도 고려 시대에 이미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많은 고려 문인들이 그의 작품을 즐겨 읽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학습대상이 되었다.[2] 이후 우리나라 문인들의 소식에 대한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소식은 아직 생존하여 한창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이미 그 명성이 고려에 전해져 金覲이 소식·蘇轍 형제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아들인 金富軾(1075~1151)·金富轍 형제의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소식 형제에 대한 추앙심이 대단했다. 이 사실은 宋나라 사신으로서 고려에 다녀간 적이 있는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 卷8 〈人物〉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2) 王水照의 〈蘇軾文集初傳高麗考〉에 따르면, 최초로 고려에 유입된 소식문집은 ≪錢塘集≫으로 熙寧 10년(1077, 고려 文宗 31년, 소식 나이 42세)에 고려 사신이었던 崔思訓이 인솔해 간 사신단이 귀국하면서 고려로 가지고 온 것이다. ≪蘇軾研究≫(王水照, 河南教育出版社, 1999) 316-317쪽 및 ≪소동파평전—중국의 문호 소식의 삶과 문학≫(왕수이자오 지음 / 조규백 옮김, 돌베개, 2013) 6쪽 참조.

www.kci.go.kr

추앙심은 점점 깊어져 고려 중엽에는 마침내 너도나도 소식의 작풍을 배우려고 하기에 이르렀으니 고려 중엽 이후 우리나라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은 실로 놀랄 만한 정도였다. 더욱이 소식에 대한 학습과 추앙은 문학 방면에서뿐만 아니라 예술·문화생활 등 각 방면에서 이루어져 고려 문단 전체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소식을 추앙하는 뜨거운 열기, 즉 소위 '東坡熱'[3]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겨난 '동파열'은 고려 중기 이후로 문단 내에서 오래도록 사그라지지 않았음은 물론, 점차 생활과 풍속에도 나타나 일종의 보편적인 문화 현상을 이루게 되었으며, 고려 중기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약 9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동파열'의 영향 아래 고려 및 조선 문단에서는 많은 문인들이 소식의 시를 적극적으로 학습하였을 뿐 아니라, 시를 지을 때 때로는 소식의 詩句나 관련 일화를 典故로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식의 시에 追和하기도 하는 등 소식 추앙과 학습의 면모가 다양하게 구현되었다. 특히 소식의 시에 추화하는 행위는 소식을 향한 추앙심을 드러내는 주요 방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는 성리학이 성행함에 따라 소식에 대한 추앙의 열기가 잠시 식었다. 왜냐하면 소식 생존 당시에 소식과 그의 동생 蘇轍을 중심으로 하는 蜀派와 程顥·程頤 형제를 중심으로 하는 洛派 사이에 학술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한 이른바 낙촉당쟁이 심했는데 이로 인하여 낙파의 뒤를 이은 程朱學派 즉 성리학자들이 촉파의 영수였던 소식을 몹시 증오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성리학자들도 이 영향을 받아 소식의 인물이나 학술뿐 아니라 그의 문학까지 비판하는 경향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4] 그런데 필자는 고려 및 조선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에

3) 金台俊(1905~1945)이 ≪朝鮮漢文學史≫(東嶽語文學會, 1972, 83쪽)에서 이러한 현상을 「동파열」이라고 칭한 이후에, 한국 학술계의 일부 학자들도 이 표현을 빌려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金暎春은 〈李奎報研究〉(啓明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1, 8쪽)에서 고려 문인들이 소식을 추앙하는 현상을 언급할 때 「東坡崇拜熱」·「東坡熱」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姜慶姬는 〈朝鮮後期 崇蘇熱과 東坡笠屐圖〉(≪中國語文學論集≫ 제65호, 2010, 416쪽)에서 "崇蘇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www.kci.go.kr

대하여 살펴보던 중 조선 중기의 대표적 성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申欽(1566~1628)이 소식에 대하여 남다른 추앙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詩文 여기저기에서 소식에 대한 추앙심을 숨김없이 드러내었는바, 고려 및 조선의 많은 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소식의 시에 追和하는 시를 지었다. 이에 필자는 신흠의 문집에서 이런 시들을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소식 시에 대한 신흠의 관심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고자 한다.

和韻은 본래 문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시에 화답하는 독특한 작시 방법으로, 처음에는 주로 동시대 문인들 사이의 교유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나중에는 이미 죽은 옛날 사람의 시에 追和하는 기풍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陶淵明의 시에 화운한 소식의 '和陶詩'가 이러한 追和詩의 창시자이자 대표자이며, 이후 많은 문인들이 소식을 모방하여 화도시를 지음으로써 화도시 창작이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5]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문인들은 도연명뿐 아니라 자신이 추앙하는 다른 시인들의 시까지 추화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 추화의 대상이 점차 다양해졌다. 이러한 추화시 창작의 기풍은 일찍이 고려 문단에도 유입되었는데, 특히 고려 중기에 '동파열'이 생겨난 이후, 고려 및 조선의 많은 문인들이 소식의 시에 추화한 '和蘇詩'[6]를 창작하게 되어 화도시와 마찬가지로 화소시 창작

4) 柳素眞, ≪蘇軾對高麗及朝鮮漢文詩壇的影響研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99-107쪽 참조.

5) "和陶是一種很特殊的、值得注意的現象, 其意義已經超出文學本身, 而在更加廣泛的文化層面上吸引我們進行研究。這種現象不僅證明陶淵明的影響巨大, 而且表明後代的文人對他有強烈的認同感, 表明陶淵明的作品具有普遍的意義。更爲重要的是, 這種現象說明陶淵明已經成爲中國文化中的一個符號。和陶, 在不同程度上代表了對某種文化的歸屬, 標誌着對某種身份的認同, 表明了對某種人生態度的選擇。" [袁行霈, 〈論和陶詩及文化意蘊〉(≪中國社會科學≫第6期, 2003), 149쪽 참조.]

6) 陶淵明의 시에 추화하여 지은 화답시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많이 있어 왔고, 또 이를 '和陶詩'라고 부르는 것이 학계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蘇軾의 시에 추화하여 지은 화답시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다 보니 이에 대한 별도의 명칭도 없는 것 같다. 본고는 편의상 '和陶詩'라는 표현방식

www.kci.go.kr

도 문인들 사이에 하나의 풍조를 이루었다.[7]

신흠의 ≪象村稿≫에 실려 있는 화소시는 총 11題 18首인데,[8] 비록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소식을 향한 그의 추앙심 및 소식과의 영향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는 신흠의 화소시를 창작동기 및 창작환경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간접적 和蘇詩

신흠에게는 〈눈이 내린 뒤 동파의 시에 차운한 동고의 시에 차운하여(次東皐雪後次東坡韻)〉와 같이 비록 原韻은 소식의 것이지만 詩題에서 밝힌 것처럼 직접적으로는 崔岦(號 東皐)의 시에 화답한 독특한 유형의 화답시가 몇 수 있다. 우선 다음의 표를 통하여 소식 시에 대한 최입[9]의 화답

을 원용하여 소식 시에 추화한 화답시를 '和蘇詩'라 부르기로 한다.

7) 화소시를 쓴 대표적인 고려 문인으로는 李仁老·李奎報·李齊賢·李穀·白文寶 등이 있고, 조선 문인으로는 徐居正·李滉·李山海·崔岦·申欽·朴世堂·南九萬·丁若鏞·金正喜·趙熙龍 등이 있다. 柳素眞, ≪蘇軾對高麗及朝鮮漢文詩壇的影響研究≫(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33-42쪽, 109-114쪽 및 柳素眞, 〈韓國古代文人的「和蘇詩」〉(≪中國語文學≫ 제63집, 2013) 참조.

8) 신흠의 화소시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한 자료는 더러 있지만, 이를 전반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상촌고≫에 실린 신흠의 시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화소시를 면밀하게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詩題만으로는 화소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시제뿐 아니라 다양한 검색어를 사용하여 찾아보았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상촌고≫에 실려 있는 신흠의 화소시는 〈次東皐雪後次東坡韻二首〉, 〈次東皐鞍山道中次東坡龜山韻〉, 〈次東皐牛家庄〉, 〈次東皐元日用立春韻二首〉, 〈次東皐用東坡除夜韻二首〉, 〈次東皐微雪用東坡韻四首〉, 〈次東皐用東坡人日病中邀客韻二首〉, 〈次東坡韻〉, 〈次東坡遷居韻〉, 〈到謫所次蘇子瞻惶恐灘韻〉, 〈次蘇東坡蘭溪歌〉 등 총 11題 18首이다. 이 가운데 〈次蘇東坡蘭溪歌〉는 〈浣溪沙—遊蘄水淸泉寺, 寺臨蘭溪, 溪水西流—〉라는 소식의 詞에 차운한 것이다. 이처럼 齊言 형식이라 시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사에 차운한 것도 조선 문인들의 또 다른 하나의 차운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www.kci.go.kr

시와 최입 시에 대한 신흠의 화답시 창작 양상을 살펴보자.

신흠과 최입의 화소시 창작 양상[10]

	신흠 화소시	최입 화소시	소식 원시
1	次東皐雪後次東坡韻二首	雪後, 次東坡韻四首	雪後書北臺壁二首
2	次東皐微雪用東坡韻四首	微雪, 復次坡詩韻四首	
3	次東皐鞍山道中次東坡龜山韻	鞍山道中, 次東坡龜山韻, 因效其首語而成	龜山
4	次東皐牛家莊	牛家庄泉水甚惡不可飮, 取雪救渴, 次東坡汲江煎茶韻	汲江煎茶
5	次東皐用東坡人日病中邀客韻二首[11]	立春日, 次東坡韻二首[12]	立春日, 病中邀安國, 仍請率禹功同來. 僕雖不能飮, 當請成伯主會, 某當杖策倚几於其間, 觀諸公醉笑, 以撥滯悶也二首
6	次東皐元日用立春韻二首	元日, 疊立春日韻二首	
7	次東皐用東坡除夜韻二首	除夜, 次東坡韻二首	除夜野宿常州城外二首

9) '崔岦'을 '최립'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과 이름을 구분하여 각각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최입'으로 표기한다.

10) 이 표는 필자가 ≪象村稿≫에 수록된 신흠의 화소시 총 11題 18首 가운데 최입의 화소시에 차운한 것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11) 신흠의 화소시 가운데, 〈次東皐用東坡人日病中邀客韻二首〉는 시제를 통해 소식이 인일 병중에 손님을 초대하여 쓴 시에 최입이 먼저 차운하였고, 최입의 이 화소시에 신흠이 다시 차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입의 시문집인 ≪簡易集≫에 수록된 그의 화소시 가운데 소식이 인일에 읊은 시에 차운한 시는 〈人日, 次坡詩韻, 聊抒感憤二首〉가 유일한데, 이 시와 같은 운자를 쓴 소식의 원시는 〈庚辰歲人日作, 時聞黃河已復北流, 老臣舊數論此, 今斯言乃驗二首〉이다. 그런데 소식의 이 시는 인일에 지은 것이기는 하지만 시제에서든 시 내용에서든 병중에 손님을 초대했다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次東皐用東坡人日病中邀客韻二首〉는 신흠이 착각해서 시제를 잘못 썼거나 문집 편찬 과정에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흠이 시제에 표기한 病

www.kci.go.kr

표에 정리된 신흠의 시 7題 14首는 시제가 모두 〈次東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시들은 모두 직접적으로는 신흠이 최입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그 중에는 〈눈이 내린 뒤 동파의 시에 차운한 동고의 시에 차운하여(次東皐雪後次東坡韻)〉와 같이 시제에서 원운이 소식의 것임을 밝힌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우가장을 노래한 동고의 시에 차운하여(次東皐牛家莊)〉와 같이 시제에서 원운이 소식의 것임을 밝히지 않은 것도 있다.

이처럼 신흠이 최입의 화소시에 차운한 시들이 사실상 소식의 원운을 사용했으면서도 시제에서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는 반면에, 최입의 시에 차운하였다는 사실은 모두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신흠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들을 짓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에 정리되어 있는 최입의 화소시가 모두 ≪甲午行錄≫에 실려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13] ≪갑오행록≫은 宣祖 27년(1594)에 원병의 파병과 光海君의 세자 책봉을 奏請하러 명나라

中邀客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소식 원시는 〈立春日, 病中邀安國, 仍請率禹功同來. 僕雖不能飮, 當請成伯主會, 某當杖策倚几於其間, 觀諸公醉笑, 以撥滯悶也二首〉이다. 또한 ≪簡易集≫(韓國文集叢刊本)에 수록된 위의 최입 시제에 "立春日, 病中邀客"이라는 註가 있는데 이 역시 위의 시가 소식 원시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즉, 시제·운자·주석 등 종합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신흠의 이 시는 최입의 〈立春日, 次東坡韻二首〉시에 차운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소식의 원시는 〈立春日, 病中邀安國, 仍請率禹功同來. 僕雖不能飮, 當請成伯主會, 某當杖策倚几於其間, 觀諸公醉笑, 以撥滯悶也二首〉임에 틀림없다.

12) 최입은 소식의 〈立春日, 病中邀安國, 仍請率禹功同來. 僕雖不能飮, 當請成伯主會, 某當杖策倚几於其間, 觀諸公醉笑, 以撥滯悶也二首〉에 대해 두 번 차운하였는데, 첫 번째 시는 입춘일에 쓴 〈立春日, 次東坡韻二首〉이고, 두 번째 시는 정월 초하룻날 첫 번째 시에 첩운하여 쓴 〈元日, 疊立春日韻二首〉이다. 두 시 모두 동일한 운자로 소식의 원시는 같지만, 신흠이 직접적으로 화답한 최입의 시는 다른 것으로 보여져 신흠 시의 제목에 맞춰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13) ≪갑오행록≫에 수록된 최입의 화소시는 총 13題 30首로, 위의 표에 수록된 화소시 외에도 〈台座分送漬蜜葡萄, 疊韻以謝〉, 〈穀日大雪, 復次坡韻, 幷下爲四首〉, 〈次日雪晴, 月又明甚〉, 〈連有大雪, 復次坡韻四首〉, 〈上元, 次東坡示過韻, 寄家子二首〉 등이 더 있는데 이 시들은 신흠이 화답하지 않은 것이다.

www.kci.go.kr

에 갔을 때의 시를 모은 것인데, 이때 奏請使는 尹根壽(1537~1616), 奏請副使는 崔岦(1539~−1612), 書狀官은 申欽(1566~1628)이었다.

신흠이 〈晴窓軟談·下〉에서 "簡易 崔岦은 문장을 지음에 있어 옛날 작자를 힘써 추구했으며 시는 부차적인 일로 여겼지만, 시 또한 奇建하여 남들보다 출중한 구절들이 있었다. 내가 그와 함께 京師로 갈 때 길 위에서 酬唱한 시가 매우 많았는데, 그 시구들을 좋아했었다"[14]라고 한 대목을 통해 신흠이 최입의 시를 좋아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당시 최입과 시로써 자주 교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표에 열거된 화소시는 바로 신흠이 최입과 함께 京師(명나라의 도성을 가리킴)로 가는 도중과 京師에 도착한 후에 주고받은 시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시들의 제목을 통해 최입이 먼저 소식의 시운을 골라 화소시를 짓고 신흠이 다시 이에 화답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최입의 시에, 간접적으로는 소식의 시에 화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신흠 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식의 원시와 밀접한 연관은 없어 보인다. 먼저 〈동고가 鞍山으로 가는 길에 東坡의 〈귀산〉 시에 차운한 것에 차운하여(次東皐鞍山道中次東坡龜山韻)〉[15]라는 시를 살펴보자.

得御龍門愜所求,	명망 높은 그대 모시게 된 것 평소 원하던 바인데
玆行況復共觀周.	이번 길엔 더구나 또 함께 중원을 보게 되었네.
朔風倒捲長河口,	차가운 북풍은 긴 강 어귀를 거꾸로 말아 올리고
積雪渾迷大野頭.	쌓인 눈은 넓은 들판에 가득 덮였네.
萬里山川供旅賞,	만 리 산천은 나그네의 구경거리 제공하고
百年文物占奇遊.	백 년 문물은 이 멋진 유람을 점유하네.
西來擬續堪輿誌,	서쪽으로 와서 감여지를 이어보려 하는데
更有如椽筆力不.	더 이상 서까래 같은 필력이 있으려나?

14) "崔簡易岦爲文, 力追古作者, 餘事於詩, 詩亦有奇健出人之句. 余同赴京師, 沿路唱酬甚多, 嘗喜其詩句."(韓國文集叢刊本 ≪象村稿≫ 卷60)

15) 韓國文集叢刊本 ≪象村稿≫ 卷12.

www.kci.go.kr

“명망 높은 그대 모시게 된 것 평소 원하던 바인데, 이번 길엔 더구나 또 함께 중원을 보게 되었네”라고 한 제1-2구에는 명망 높은 최입을 모시고 함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여기는 신흠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이어서 명나라로 가는 길에 보게 된 자연풍광과 문물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출함과 동시에 감여지, 즉 풍수지리서를 쓰고 싶은 욕심이 난다고까지 찬탄하였다. 특히 첫 두 구절을 통해 당시 최입과의 교유를 위해 차운시를 남겼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신흠이 차운한 최입의 원시는 다음과 같다.

我行數數亦何求, 내 발걸음 허겁지겁 또 무엇을 구해서인가?
三過鞍山歲未周. 세 번째로 안산을 지나는데 한 해가 지나지 않았네.
風塵安得開兩眼, 풍진에 어찌 두 눈을 뜰 수 있겠는가?
霜雪從教欺白頭. 서리와 눈이 흰 머리를 기롱하게 내버려 두네.
昨夜氷輪乘霽動, 지난밤 날 개면서 밝은 달이 떠가더니
今朝野馬弄暄遊. 오늘 아침 아지랑이가 따뜻한 기운에 어른거리네.
遼天十月西歸路, 시월의 요녕 하늘 서쪽으로 돌아가는 길
似此淸姸再遇不. 이처럼 맑고 고운 경치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鞍山으로 가는 길에 東坡의 〈귀산〉 시에 차운하면서 그 첫 머리의 말을 모방하여 쓴다(鞍山道中, 次東坡龜山韻, 因效其首語而成)〉[16]라고 시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입은 소식의 〈龜山〉시에 차운하면서 동시에 원시의 첫머리 부분을 변용하여 자신의 시 제1-2구를 썼다. 소식의 〈龜山〉[17]은 그가 항주통판으로 부임해 가는 도중 5년 전에 아버지의 영구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나갔던 龜山을 다시 지나면서 느낀 바를 노래한 시이다.

我生飄蕩去何求, 내 인생 오락가락 무엇을 찾으러 다니나?

16) 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7.
17) 王文誥輯註本 ≪蘇軾詩集≫(中華書局, 1987) 卷6.

www.kci.go.kr

再過龜山歲五周. 오 년 만에 또 다시 귀산을 지나가네.
身行萬里半天下, 이 몸은 만리를 다녔으니 천하의 절반인데
僧臥一菴初白頭. 스님은 한 암자에 누운 채 머리가 세기 시작하네.
地隔中原勞北望, 땅이 중원에서 떨어져 있어 애써 북쪽을 바라보나니
潮連滄海欲東游. 창해로 이어진 저 물을 따라 동쪽으로 가고 싶네.
元嘉舊事無人記, 원가 시절 옛날 일을 기억하는 이 없는데
故壘摧頹今在不. 무너진 옛날 보루 아직 남아 있을까?

여기에는 관직을 따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비감과 조정에 간신배들이 득실거리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절망, 그리고 이로 인하여 생긴 세속적인 일에 대한 허무감과 은퇴에의 염원 등이 나타나 있다.[18]

이처럼 최입은 애초에 소식의 〈龜山〉시 첫 머리의 말을 떠올리며 화소시를 썼는데, 신흠의 시에는 최입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만 소식의 원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내용은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다. 신흠은 소식의 원시보다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차운하는 대상인 최입과 그의 시에 더욱 신경 썼음을 느낄 수 있다.

표에 열거된 신흠의 화답시에서, 신흠이 시제에다 소식의 시에 차운했다는 사실은 굳이 밝히지 않고 최입의 시에 차운했다는 사실만 명시한 것도 그의 작시 의도가 최입의 시에 차운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흠은 이런 시들을 쓸 때 비록 소식의 시에 追和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자신의 시를 직접 읽게 될 최입 시에 대한 화답의 의지가 더욱 강했고, 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해야 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신흠이 이러한 화소시를 쓸 때, 아마도 동시대 문인인 최입과의 교유에 더욱 중점을 두었을 것이며,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소식의 詩韻은 신흠과 최입의 시를 통한 교유, 즉 「以詩會友」를 위한 일종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 蘇軾著/柳種睦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515쪽 참조.

www.kci.go.kr

그리고 이러한 '以詩會友'의 과정 속에는 문인들 간에 서로 시재를 겨루어 보고 싶은 욕망도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에서 보다시피, 신흠과 최입의 화소시 가운데 소식의 원시 〈눈이 내린 후에 북대에 쓴다(雪後書北臺壁二首)〉에 대하여, 신흠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수와 4수 차운했고,[19] 최입은 네 차례에 걸쳐 각각 4수씩 총 16수 차운했다.[20] 당시에 신흠도 똑같이 네 차례를 지었는데 일부 시가 산일된 것인지 아니면 신흠은 최입과 달리 애초에 두 차례 밖에 안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에 대해 최입과 신흠 모두 여러 수의 시를 남긴 것은 분명하다. 이들이 소식의 동일한 시에 대해 여러 차례 차운한 것은 단순히 사행 기간에 눈이 여러 차례 내려서라기보다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시는 소식이 눈이 내린 뒤의 감회를 읊어서 密州 北城 위에 있던 北臺의 벽에 써 놓은 것인데, 陸游가 〈소동파가 '尖'·'叉'운을 써서 눈을 읊은 시에 화답한 여성숙의 시를 읽고(跋呂成叔和東坡尖叉韻雪詩)〉에서 "소문충공의 문집에 '尖'·'叉' 두 자를 써서 눈을 읊은 시가 있고 왕문공의 문집에는 또 소식의 운에 차운하여 지은 시가 있는데 논자들이 말하기를 '이 들 두 분 말고는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 예주통판 성숙 여문지는 마침내 단번에 100편을 창화했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절묘하여 억지로 끌어다 붙인 병폐가 없다"[21]라고 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는 당시에 많은 시인들이 화답시를 지었다.[22] 이 시

19) 〈次東皐微雪用東坡二首〉와 〈次東皐雪後次東坡韻四首〉가 그것이다.

20) 위의 표에 수록된 〈雪後, 次東坡韻四首〉, 〈微雪, 復次坡詩韻四首〉 및 〈穀日大雪, 復次坡韻幷下爲四首〉(이 4수에는 〈次日雪晴, 月又明甚〉라는 별도의 제목을 붙인 2수가 포함되어 있다), 〈連有大雪, 復次坡韻四首〉가 그것이다.

21) "蘇文忠集中有雪詩, 用尖叉二字, 王文公集中又有次蘇韻詩, 議者謂: '非二公莫能爲也.' 通判澧州呂文之成叔, 乃頓和百篇, 字字工妙, 無牽強湊泊之病."(文淵閣四庫全書本 ≪渭南文集≫ 卷30)

22) 蘇軾著/柳種睦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00쪽 참조.

www.kci.go.kr

의 운자가 險韻이라 시를 짓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훌륭한 시를 짓자, 시인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일부러 이 시에 화답시를 짓곤 했던 것 같다. 소식이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나의 앞 시에 화답한 것에 감사하여(謝人見和前篇二首)〉[23]라는 시까지 지은 것 역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비단 중국 문인들뿐 아니라 고려 및 조선 문인들도 이 시에 적지 않은 화답시를 남겼는데,[24] 신흠과 최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시에 차운한 데에도 바로 이와 같이 시재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淸代 趙翼(1727~1814)의 ≪甌北詩話≫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다.

> 대체로 재능 있는 사람들은 명성 얻기를 좋아하여,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후대에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낸다. 예로부터 오직 和詩가 있었을 뿐, 和韻은 없었다. 唐代의 사람들에게는 화운이 있었지만, 아직 次韻은 없었다. 차운은 실로 元稹과 白居易로부터 시작되었다. 순서 그대로 押韻字를 써서 전후 순서가 달라지지 않게 하는 작법은 예전에 없던 것이었다. 그리고 장편이 폭을 거듭하여, 많게는 백 운, 적다고 해도 수십 운을 써서 솜씨를 다투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이 또한 예전에는 없던 일이다. 다른 이들의 화운시는 1~2수를 넘지 않았으나 원진과 백거이의 경우 많게는 16권, 도합 천여 편에 이르니, 이 또한 예전에 없던 일이다. 이로써 하나의 格을 따로 이루어 한 세대를 뒤흔들었으니 후대에

23) 이 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 〈雪後書北臺壁二首〉에 창화한 것을 보고 이에 감사하는 뜻에서 다시 차운하여 2수를 지은 것이다. 〈雪後書北臺壁二首〉는 王安石·呂文之 등 당시 문인들의 唱和詩가 굉장히 많았거니와 왕안석이나 여문지가 이 시를 보기도 전인 눈이 내린 직후에도 密州 문인들이 北臺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며 번갈아 창화시를 지었는데 〈謝人見和前篇二首〉는 이에 대하여 다시 창화한 시인 것으로 보인다. 蘇軾著/柳種睦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04쪽 참조.

24) 예를 들면, 李仁老의 〈雪用東坡韻〉, 徐居正의 〈次東坡咏雪詩韻, 效荊公〉, 朴世堂의 〈次東坡詠雪韻〉 등이 있다.

www.kci.go.kr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체로 원진과 백거이가 보기에 이러한 체는 역대에 없던 것이므로, 이를 기점으로 하여 특출함을 뽐낼 수 있었다. 그들 스스로 재능을 헤아려 보아도 그런 시를 짓기에 넉넉하였다. 그리하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간에 솜씨를 겨루다가 드디어 그로 인해 명성을 날렸던 것이다. 원진은 〈令狐相公께 드리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저와 과거급제 동기생인 백거이는 문자 구사하기를 좋아하고 성운을 극도로 추구하여, 작품이 천 자짜리도 있고 오백 자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헤아려보건대, 그의 솜씨를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진 시의 운을 종종 재미 삼아 늘어놓아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었으니, 그것을 이름하여 次韻이라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어려운 것을 주문하여 상대방과 겨루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백거이가 원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썼다. "필적할 만한 자가 있으면 기운이 진작되고 위급하면 계책이 생겨난다오. 그대가 보내온 글들을 보자면 오직 나를 곤란에 빠뜨리기만을 추구할 뿐이오. 그래서 내가 답하여 지은 작품들은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과시를 하게 된다오." 이러한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의 실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두 사람의 차운시들이 모두 남아 있는데, 오언배율은 실로 솜씨가 모두 대등하게 맞설 만하니, 우열을 가릴 수 없다.(大凡才人好名, 必創前古所未有, 而後可以傳世. 古來但有和詩, 無和韻. 唐人有和韻, 尚無次韻; 次韻實自元、白始. 依次押韻, 前後不差, 此古所未有也. 而且長篇累幅, 多至百韻, 少亦數十韻, 爭能鬪巧, 層出不窮. 此又古所未有也. 他人和韻, 不過一二首, 元、白則多至十六卷, 凡一千餘篇, 此又古所未有也. 以此另成一格, 推倒一世, 自不能不傳. 蓋元、白覷此一體, 爲歷代所無, 可從此出奇; 自量才力, 又爲之而有餘. 故一往一來, 彼此角勝, 遂以之擅場. 微之〈上令狐相公書〉, 謂: "同門生白居易, 愛驅駕文字、窮極聲韻, 或千言、或五百言. 小生自揣, 不能有以過之, 往往戲排舊韻, 別創新詞, 名爲次韻. 蓋欲以難相挑耳." 白與元書, 亦謂: "敵則氣作, 急則計生. 以足下來章, 惟求相困, 故老僕報語, 不覺太誇." 觀此可以見二公才力之大矣. 今兩家次韻詩具在, 五言排律, 實屬工力悉敵, 不分勝負.)[25]

이처럼 元稹과 白居易는 유달리 자주 唱和하였는데 특히 이전에는 없던 차운시를 쓰고 장편 차운에까지 도전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였는

25) 清嘉慶湛貽堂刻本 ≪甌北詩話≫ 卷4.

www.kci.go.kr

데, 여기에는 서로 솜씨를 겨루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식도 화도시를 쓰면서 "내가 전후로 그의 시에 화답한 것이 모두 백 수십 편인데, 득의한 데 이르면 도연명에 부끄럽지 않다"[26]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시재 과시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식이 화도시를 쓸 때, 도연명을 향한 추앙심을 드러내는 것 이외에, 도연명과 詩才를 비견해 보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처럼, 화소시를 쓴 많은 문인들 역시 소식과 비슷한 심리로, 그의 시에 추화함으로써 소식에 대한 흠모를 표현하고 그의 시를 학습하는 것 외에, 자신의 시재를 소식이라는 대문호와 한 번 겨루어 보고 싶은 욕구가 내재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흠의 경우, 소식의 〈눈이 내린 후에 북대에 쓴다(雪後書北臺壁二首)〉라는 시에 차운한 최입의 화소시에 여러 수의 차운시를 지었는데, 이 시는 險韻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지어 극찬받았던 작품으로, 굳이 이 시에 여러 차례 차운한 데는 아마도 시를 직접 주고받은 최입과 서로 시재를 겨루어 보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원시 작자인 소식과도 실력을 비견해 보며 자신의 시재를 과시해 보고 싶은 욕망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흠의 간접적 화소시는 동시대인과의 시적 교유, 즉 '以詩會友'를 위해서 지은 것이라 소식의 원시와 내용상 긴밀하게 연관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식의 원시와 전혀 무관하게 지은 것도 아니다. 그의 〈우가장을 노래한 동고의 시에 차운하여(次東皐牛家庄)〉에 그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 이 시에서 그는 "동파 신선이 활화로 끓이길 기다릴 필요 없나니, 천연의 기이한 물건이 무척이나 맑다네"[27]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식의 원시 〈강물을 길어다 차를 끓여 마시고(汲江煎茶)〉에서

26) "吾前後和其詩凡百數十篇, 至其得意, 自謂不甚愧淵明."(蘇轍, ≪欒城後集≫ 卷21(≪欒城集≫, 上海古籍出版社, 1987) 〈子瞻和陶淵明詩集引〉)

27) "不待坡仙活火烹, 天然奇種十分淸."(韓國文集叢刊本 ≪象村稿≫ 卷12)

www.kci.go.kr

“산 불로 산 물을 끓여야 하매, 낚시터에 직접 가서 깊고 맑은 물을 펐네”[28]라고 한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소식은 탈속적인 기질 때문에 ‘동파 신선(坡仙)’이라고들 하는데 신흠이 자기 시에서 소식을 ‘동파 신선(坡仙)’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이미 소식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신흠의 간접적 화소시가 일차적으로는 최입의 화소시에 화답하면서 동시에 소식의 원시에 화답하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Ⅲ. 직접적 和蘇詩

신흠은 宣祖·光海君·仁祖 시대에 걸쳐 활동했던 정치인이자 유학자로 조선 중기 漢文四大家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명한 성리학자였다. 신흠이 활동한 조선 중기는 정치·사회면에서 壬辰倭亂(1592)·丁酉再亂(1597)·癸丑獄事(1613)·仁祖反正(1623)·李适의 亂(1624)·丁卯胡亂(1627) 등과 당쟁으로 인한 내우외환이 겹친 역경과 고난의 시기였다. 그는 이러한 시기에 탁월한 외교가로서 명나라와의 친교를 두텁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활약하였다. 그런데 47세 되던 1613년(光海君 5년)의 癸丑獄事 때, 宣祖로부터 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받은 遺教七臣[29]의 한 사람이라 하여, 仕版을 削去당하고 김포로 방축되었다. 1616년 10월까지 전원생활을 하다가, 1616년(光海君 8년)에 인목대비가 폐위되고 金悌男에게 加罪될 때 臺論이 일어 鷺梁에서 待罪하며 지내다가 이듬해 정월에 춘천에 付處되었다. 1621년(光海君 13년) 5월에야 은을 납부하고 사면 받았는데, 춘천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玄翁이라는 호를 사

28) “活水還須活火烹, 自臨釣石取深淸.”(王文誥輯註本 ≪蘇軾詩集≫ 卷43)

29) 宣祖가 승하할 때 자기가 죽은 뒤에 어린 영창 대군을 잘 보살피라는 遺命을 내린, 柳永慶·韓應寅·朴東亮·徐渻·申欽·許筬·韓浚謙 등 신임하던 신하 일곱 명을 가리킨다.

www.kci.go.kr

용하면서 많은 시문을 지었다.[30]

신흠은 바로 이 무렵, 소식이 惠州로 폄적가던 도중에 지은 시의 韻字를 사용하여 화소시를 지었다. 그 가운데 〈폄적지에 도착하여 황공탄을 읊은 소자첨의 시에 차운한다(到謫所, 次蘇子瞻惶恐灘韻)〉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원시인 소식의 〈8월 7일에 막 감강으로 들어가 황공탄을 지나며(八月七日, 初入贛, 過惶恐灘)〉[31]를 먼저 살펴보자.

七千里外二毛人, 칠천 리 바깥의 반백이 다 된 사람
十八灘頭一葉身. 십팔탄 어귀에서 일엽편주 타는 몸.
山憶喜歡勞遠夢, 산은 희환산을 그립게 하여 먼 곳을 꿈꾸려 애쓰게 하고
地名惶恐泣孤臣. 땅은 황공탄이라 이름하여 외로운 신하를 울게 하네.
長風送客添帆腹, 장풍은 나그네 보내려고 돛의 배를 부풀리고
積雨浮舟減石鱗. 장맛비는 배를 띄우려고 돌비늘을 줄였네.
便合與官充水手, 나야말로 관직을 주어 뱃사공 삼기에 알맞나니
此生何止略知津. 내 인생이 어찌 나루터나 대강 아는 데 그치리?

이 시는 소식이 혜주로 유배 가는 도중 惶恐灘에 이르러 지은 것이다. 황공탄은 贛江에 있는 열여덟 개의 험난한 여울인 이른바 감강십팔탄의 하나로 원래 이름이 黃公灘이었는데 소식이 惶恐灘으로 바꾸었다고 전해진다. 惶恐은 '황공하다'라는 뜻과 '황공탄'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는 중의적 표현이며, 喜歡은 산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기쁘다'라는 뜻과 '희환산'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는 중의적 표현으로 쓰였다. 마지막 연의 '知津'은 '나루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다'라는 뜻인데, 이 연은 소식 자신이 일생 동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보아서 뱃사공 노릇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잘 안다는 뜻이다. "땅은 황공탄이라 이름하여 외로운 신하를 울게 하네", "나야말로 관직을 주어 뱃사공 삼기에 알맞나니"와 같이 중의적

30) ≪상촌 신흠의 문학세계≫(민족문화추진회, 1997) 81쪽 및 심경호, ≪한국 한시의 이해≫(태학사, 2000) 371-372쪽 참조.
31) 王文誥輯註本 ≪蘇軾詩集≫ 卷38.

www.kci.go.kr

인 표현과 다소 해학적인 표현으로 넌지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32]

북한강의 청평 부근에도 贛江의 여울 이름을 딴 황공탄이라는 여울이 있었는데, 신흠은 그곳을 지나오면서 소식의 이 시가 떠올랐고, 춘천에 도착한 후 〈폄적지에 도착하여 황공탄을 읊은 소자첨의 시에 차운한다(到謫所, 次蘇子瞻惶恐灘韻)〉[33]라는 시를 짓게 된다.[34]

放歸田里四年人, 네 해 동안 방귀전리 당한 사람이
又作中途付處身. 또 이렇게 중도부처되는 몸이 되었네.
共道此時湘水客, 다들 말하길 지금 저 상수의 나그네가
曾爲當日鳳池臣. 예전에는 봉지의 신하였다고 하네.
不嫌長鶴仍存脛, 꺽다리 학에게 아직도 모이주머니가 있음에 만족하고
也喜潛虬未褪鱗. 물속의 용이 아직 비늘이 안 떨어진 것도 기뻐하네.
回首莫愁鄕國遠, 돌아보며 고향이 멀다고 걱정 마라
昭陽西接漢江津. 소양강은 서쪽으로 한강 나루와 붙었으니.

폄적지에 막 도착한 신흠은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 상수의 나그네(湘水客), 즉 湘江의 지류인 汨羅江에 빠져 죽은 屈原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고는 다시 스스로를 꺽다리 학(長鶴)과 물속의 용(潛虬)에 비유하며 그래도 아직 모이주머니가 있고 비늘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현재의 이러한 상태라도 만족하고자 한다. 소식의 원시에 하나하나 답을 하듯이 써내려간 것은 아니고 시 안에서 소식에 대한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 시에 차운한 이유가 단순히 황공탄이라는 여울의 이름이 같아서만은 아닐 것이다. 〈8월 7일에 막 감강으로 들어가 황공탄을 지나며(八月七日, 初入贛, 過惶恐灘)〉를 지을 무렵의 소식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의 시를 떠올렸을 것이고 특히나 그 옛날 소식이

32) 류종목, ≪팔방미인 소동파≫, 신서원, 2005, 291쪽 참조.
33) 韓國文集叢刊本 ≪象村稿≫ 卷16.
34) 심경호, ≪한국 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374쪽 참조.

www.kci.go.kr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슬픔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스갯소리를 하듯 시를 지었던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정신을 본받아 비애를 극복하고자 했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는 고향이 멀기는 하지만 그나마 소양강이 서쪽으로 한강 나루와 붙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듯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다. 신흠이 이렇게 소식의 시에 추화시를 지은 것은 소식의 처지에 공감을 느낌과 동시에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던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소식이 혜주로 좌천되어 合江樓에서 嘉祐寺로, 가우사에서 다시 합강루로 전전하다가 1096년 4월 20일에 또 다시 가우사로 거처를 옮긴 뒤에 지은 〈이사(遷居幷引)〉[35]라는 시이다.

前年家水東, 재작년에는 강[36] 동쪽에 살아서
回首夕陽麗. 고개를 돌리면 석양이 고왔네.
去年家水西, 작년에는 강 서쪽에 살아서
濕面春雨細. 가느다란 봄비가 얼굴을 적셨네.
東西兩無擇, 동쪽이고 서쪽이고 내가 고른 것이 아닌지라
緣盡我輒逝. 인연이 다하면 즉시 떠났네.
今年復東徙, 올해에 다시금 동쪽으로 이사하여
舊館聊一憩. 옛 집에는 아쉬운대로 한 번씩 가서 쉬네.
已買白鶴峰, 이젠 이미 백학봉을 사서
規作終老計. 노후의 대책을 세워놓았네.
長江在北户, 긴 강[37]이 북쪽 문 밑에 있고
雪浪舞吾砌. 눈 같은 물결이 섬돌 밑에서 춤추네.
青山滿墻頭, 청산은 담장 위에 가득 늘어서 있고
鬟髻幾雲髻. 상투 모양의 구름이 멋지네.
雖慙抱朴子, 비록 포박자가
金鼎陋蟬蜕. 금솥으로 먼 곳에서 등선한 것에는 부끄럽지만

35) 蘇軾, 〈遷居幷引〉,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卷40.
36) 惠州의 西枝江을 가리킨다.
37) 惠州의 東江을 가리킨다.

www.kci.go.kr

猶賢柳柳州, 그래도 유유주가
廟俎薦丹荔. 사당에서 제사 지낼 때 여지를 받아 먹는 것보다는 낫다네.
吾生本無待, 내 인생은 본래 기대하는 게 없거니와
俯仰了此世. 눈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이 끝나리라.
念念自成劫, 찰나가 스스로 억겁을 이루나니
塵塵各有際. 만물이 다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네.
下觀生物息, 여기서 생물들이 숨쉬는 것을 내려다보니
相吹等蚊蚋. 서로 숨쉬며 다니는 꼴이 모기와 같네.[38]

시의 전반부는 소식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이 무렵 소식은 혜주에 폄적 가 있었는데 재작년·작년·올해에 걸쳐 계속해서 西枝江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동쪽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신세에 대해 별다른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인연이 다하면 즉시 떠났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초탈함과 의연함을 견지하고 있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내 인생은 본래 기대하는 게 없거니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이 끝나리라"라고 하였으니 이는 억겁의 세월을 한순간으로 여기는 불교적 관점을 드러낸 것이다. 마지막 연에서는 "여기서 생물들이 숨쉬는 것을 내려다보니, 서로 숨쉬며 다니는 꼴이 모기와 같네."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모기처럼 하찮다는 말이다. 결국 별 것도 아닌 인생을 힘겹게 살 필요 없지 않겠느냐며, 인생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소식처럼 짧은 시간에 이곳저곳 자주 옮겨 다닌 것은 아니지만, 신흠 역시 춘천으로 폄적을 가게 되면서 타지에서 처량한 신세가 된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감회가 일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동파의 〈이사〉 운에 차운하여(次東坡遷居韻)〉[39]라는 화답시를 지었다.

38) ≪莊子·逍遙遊≫에 "아지랑이나 먼지는 생물이 숨을 내뿜는 것이다(野馬也, 塵埃也, 生物之以息相吹也)"라는 말이 있다.
39) 韓國文集叢刊本 ≪象村稿≫ 卷6.

www.kci.go.kr

我來府城南, 이 고을 성곽의 남쪽으로 왔더니
繞屋煙樹麗. 집을 에운 안개 속의 나무들이 아름답고
滄江官道傍, 푸른 강이 한길 옆에 뻗어 있는데
水淸沙復細. 참으로 물이 맑고 모래도 곱다.
世故固難常, 세상사란 참으로 변함없기 어려우니
萬緣任遷逝. 온갖 인연 흘러가게 내버려 둘 일이고
人生有定分, 인생에 정해진 분수가 있는 데다
駕者還須稅.[40] 멍에를 쓴 말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
寄此山水鄕, 산수 좋은 이 고을에 내 몸을 맡겼으니
遲暮眞良計. 늘그막에 참으로 훌륭한 계책이라
虛室自生明, 빈방에 저절로 밝은 빛이 생기고
雲霞棲曲砌. 아름다운 노을이 굽은 섬돌에 깃든다.
窈窕淸平洞, 깊숙하고 고요한 청평동 골짜기엔
一一皆螺髻. 하나하나 모두가 소라 모양 상투인데
誰言九返妙, 그 누가 아홉 번 구운 丹砂가 좋다 하는가
卽玆身可蛻. 여기 오니 이 몸이 허물 벗을 수 있는 것을?
蘇仙在惠州, 소동파란 신선은 혜주에 있을 적에
漫誇日啖荔. 날마다 여지 먹는 것을 마냥 자랑했거니와
伊翁吾臭味, 이 늙은이 취향이 나와 같은데
恨未生同世. 동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이로다.
單趺試鼻觀, 반가부좌하고 앉아 코끝을 응시하며
爲己存實際. 자신을 수양하여 참된 실상 보존할 일
塵寰亦何好, 티끌세상에는 역시 좋은 것이 뭐 있으리
擾擾空蠅蚋. 와글와글 파리와 모기만 나는 것을?

제1구에서 제4구까지는 비록 폄적 오게 된 땅이기는 하지만 이곳 춘천

40) 소식의 원운은 '憩'인데 신흠은 '稅'자를 썼다. 제목에서 차운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차운시가 확실하고, 그렇다면 운자가 원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신흠이 시를 쓰던 당시에 착각했거나 실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서 문집을 편찬하는 도중에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두 글자 모두 '휴식하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www.kci.go.kr

이라는 마을의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시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이어서 세상사란 변함없이 일정하기 어려우니 인연과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또 인생에는 정해진 분수가 있는 것이니 억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때때로 쉬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 관직에 매여 있는 자신을 멍에를 쓰고 수레를 끄는 말에 비유하여 이러한 말도 한 번씩 휴식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폄적되어 일이 없어진 자신을 위로한 말이라 볼 수 있다. 폄적 생활을 오히려 휴식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소동파란 신선은 혜주에 있을 적에, 날마다 여지 먹는 것을 마냥 자랑했거니와"라는 시구는 소식의 〈여지를 먹으며(食荔支二首)〉라는 시를 인용한 것이다. 소식은 이 시에서 "나부산 아래는 사시사철 봄이라, 비파와 양매가 차례대로 난다네. 날마다 여지 삼백 개를 먹나니, 오래도록 영남 사람이 되어도 좋으리"[41]라고 하며 여지를 먹는 즐거움을 해학적으로 노래한 바 있다. 이 무렵 소식은 북쪽으로 돌아가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영원히 영남 사람이 되기로 했음을 해학적인 말투로 천명했으니 그 이유가 바로 여지를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지가 아무리 맛있다 한들 이것 때문에 열악한 폄적지에서 여생을 보낼 정도는 아니었을 터, 여기에도 역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비애를 지양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식의 초연한 태도와 호방한 기상이 잘 드러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점이 바로 역대의 많은 문인들이 소식을 숭상하고 배우고자 한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신흠 역시 유배지에 와서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 보고자 소식의 이와 같은 정신과 태도를 배워 최대한 긍정적으로 비애를 극복해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이 늙은이 취향이 나와 같은데, 동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며 소식이 만년에 禪學에 심취하였듯이 자신도 그러한 소식의 수양법을 배우고자 하는 각오를 드러냈다. 특히 마지막

41) "羅浮山下四時春, 盧橘楊梅次第新. 日啖荔支三百顆, 不辭長作嶺南人."(王文誥 輯註本 ≪蘇軾詩集≫ 卷40)

www.kci.go.kr

연에서는 “티끌세상에는 역시 좋은 것이 뭐 있으리, 와글와글 파리와 모기만 나는 것을?”이라며 마무리하였는데 속세에 염증을 느끼는 이들의 생각도 비슷하고 두 시의 풍격도 유사해 보인다.

내용이나 풍격 등의 방면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시는 앞서 살펴본 〈폄적지에 도착하여 황공탄을 읊은 소자첨의 시에 차운한다(到謫所, 次蘇子瞻惶恐灘韻)〉보다, 소식의 원시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흠 화소시와 소식 원시의 주제가 비슷할 뿐 아니라 신흠의 화소시에서 소식 관련 전고를 활용하거나 소식 원시의 시어도 차용하여 시의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소식에 대한 추앙심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냈다고 하겠다.

소식은 혜주·담이 등지에서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하다가 철종 元符 3년(1100)에 완전히 사면되어 提擧成都玉局觀에 임명됨과 동시에 거주의 자유를 회복했는데, 신흠은 자신의 처지가 소식과 매우 비슷하다고 여겨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다. 그가 춘천에 유배 갔을 때 쓴 수필 〈春城錄〉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과연 동파 노인의 成都玉局觀 발자취와 같아질 수 있을까?”[42]라 하며 만년에 거주의 자유를 회복한 소식과 같아질 수 없을까 봐 염려했다. 또한 소식이 벌을 받은 기간과 벌이 더해진 상황마저 자신과 비슷하기에 훗날 보기 위해 이를 기록한다고 밝히면서, 소식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신흠이 폄적지에서 〈폄적지에 도착하여 황공탄을 읊은 소자첨의 시에 차운한다(到謫所, 次蘇子瞻惶恐灘韻)〉나 〈동파의 〈이사〉운에 차운하여(次東坡遷居韻)〉 같은 화소시를 짓게 된 것도 바로 이와 유사한 심리, 즉 소식에게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며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일찍이 소식이 유배지에서 도연명과의 정신적 교류를 위해 화도시를 지은 것처럼, 신흠도 소식과의 정신적 교류를 통해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화소시를 지었다고 할 수 있겠다.

42) “能如坡老玉局之往躅耶?”(韓國文集叢刊本 ≪象村稿≫ 卷55)

www.kci.go.kr

Ⅴ. 결론

조선 중기 성리학자 신흠의 화소시를 창작동기 및 창작환경에 따라 간접적 화소시와 직접적 화소시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신흠의 간접적 화소시는 동시대 문인과의 교유가 주요한 창작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화소시는 대부분 시제에서 소식의 시에 차운한 최입의 시에 차운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의 내용이나 풍격 면에서 소식의 원시와 긴밀한 연관이 없다. 이러한 간접적 화소시는 소식의 원시보다는 동시대 문인 최입의 시에 화답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소식 시의 운자를 동시대인과의 시적 교유를 위한 일종의 매개체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창작 행위에는 최입은 물론 원시 작자인 소식과도 시재를 비견해 보고자 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신흠의 간접적 화소시가 대체로 동시대 문인과의 교유를 위해 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소식 시의 내용을 의식하면서 그것에 화답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신흠의 직접적 화소시는 단순히 소식 시의 운자를 빌려 와서 형식만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내용상으로도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고 풍격도 원시와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식을 향한 신흠의 깊은 추앙과 흠모에 기인한 것이며, 동시에 소식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유배지에서의 착잡하고 괴로운 마음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신흠은 젊은 시절에는 아직 소식 시에 대한 애호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듯 간접적인 방식으로 화소시를 지어 소극적으로 소식 시에 화답한 것으로 보이고, 만년에 들어 폄적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소식에게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면서 직접적으로 화소시를 지어 적극적으로 그의 시에 화답했는데, 그가 지은 화소시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www.kci.go.kr

그가 살았던 조선 중기에는 성리학의 성행과 唐詩 학습의 열풍으로 인하여 소식 시에 대한 애호와 추앙이 많이 식은 상태라 오히려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다. 당시 저명한 성리학자였던 신흠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성리학자들이 배척했던 소식을 매우 흠모하였으며, 당시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던 문단 내의 주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송시의 대표자인 소식의 시를 즐겨 읽고 그것을 배우고자 했다는 사실은 보통의 조선 성리학자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면모라 하겠다.

<References>

1. Cho Kyubaek. “Acceptance and Evaluation of Su Dongpo’s Poetry by the Literati of the Choseon dynasty”.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 Studies* Vol.91, (2015).
2. Cho Kyubaek. “An outlook on the Acceptance of Su Dongpo’s Literature during Goryo and Choseon dynasty”. *Journal of Chinese Studies* Vol.73, (2015).
3. Cui Yip. *Ganyijip*. Hankuk Munjip Chonggan.
4. Jung Sook In. “A Study on 20 Drinking Poems among Shin Hum’s Hwadosi”.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Vol.35, (2012).
5. Kang Kyung Hee. “A Study on Tendency to Revere Su Shih and the Su Shih’s Portrait with a Bamboo Hat and Wooden Shoes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65, (2010).
6. Kim Bokyung.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n the ‘He-Tao-Shi’ by Traditional Korean Poets”.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Vol.66, (2011).
7. Kim Ju Baek. “A Study of Sangchon Shim Hum’s 「Hwadosi」”.

www.kci.go.kr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Vol.10, (1992).

8. Kim Young Chun. *A study on Lee Kyo BO*. Daegu: Keimyung University, 1981.
9. Liu Jongmok. *Su Dongpo, a jack-of-all-trades*. Seoul: Sinseowon, 2005.
10. Liu So Jin. *A Study on Su Shi's Influence on the Poetry of the Gaoli Dynasty and the Chaoxian Dynasty*. Beijing: Peking University, 2013.
11. Liu So Jin. "Responding poems to Su Shi's*(和蘇詩)* of Ancient Korean Poets".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63, (2013).
12. Lu You. *Weinanwenji*. Wenyuange Sikuquanshu.
13. Minjokmunhua Chujinhui. *The Literary World of Shin Heum*. Seoul: Minjokmunhua Chujinhui, 1997.
14. Park Haenam. *The Trace and Meaning of Shin Heum's Literature*. Paju: Bogosa, 2012.
15. Shin Heum. *Sangchongo*. Hankuk Munjip Chonggan.
16. Sim Kyungho. *Comprehension of the Poetry in Chinese Characters by Korean*. Paju: Taehaksa, 2000.
17. Su Shi/Liu Jongmok. *Sushishiji translated into Korean 1-2*.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2.
18. Su Shi/Wang Wengao. *Sushishiji*. Beijing: Zhonghua Shuju, 1987.
19. Su Zhe. *Luanchengji*. Shanghai: Shanghai Guji Chubanshe, 1987.
20. Wang Shuizhao/Cho Kyubaek. *A Literary Giant of China Su Shi's Life and Literature*. Paju: Dolbegae, 2013.
21. Wang Shuizhao. *Sushi Yanjiu*. Shijiazhuang: Henan Jiaoyu Chubanshe, 1999.
22. Yuan Xingpei. "A Study on hetaoshi(*和陶詩*) and its cultural

www.kci.go.kr

significance". *Zhongguo Shehui Kexue* Vol.6, (2003).
23. Zhao Yi. *Oubeishihua*. Qing Jiaqing zhanyitang.

< 참고문헌 >

1. 조규백, 〈조선조 문인의 소동파시 수용과 평가〉, ≪대동문화연구≫ 91권, 2015.
2. 조규백, 〈고려·조선조에서의 소동파 수용에 관한 연구개황—1964~2015년 기간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73집, 2015.
3. 崔笠, ≪簡易集≫(韓國文集叢刊本)
4. 정숙인, 〈象村 申欽의 〈和陶詩〉 중 〈飮酒〉 20首 연구: 陶淵明의 〈飮酒〉, 蘇軾의 〈和陶飮酒詩〉와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우리문학연구≫ 35권, 2012.
5. 姜慶姬, 〈朝鮮後期 崇蘇熱과 東坡笠屐圖〉, ≪中國語文學論集≫ 제65호, 2010.
6. 김보경, 〈韓國「和陶詩」研究 序說〉, ≪중국문학≫ 66권, 2011.
7. 김주백, 〈象村 申欽의 和陶詩 연구〉, ≪한문학논집≫ 10권, 1992.
8. 金暎春, 〈李奎報研究〉, 啓明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1.
9. 류종목, ≪팔방미인 소동파≫, 신서원, 2005.
10. 柳素眞, ≪蘇軾對高麗及朝鮮漢文詩壇的影響研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11. 柳素眞, 〈韓國古代文人的「和蘇詩」〉, ≪中國語文學≫ 제63집, 2013.
12. 陸游, ≪渭南文集≫(文淵閣四庫全書本)
13. 민족문화추진회, ≪상촌 신흠의 문학세계≫, 民族文化推進會, 1997.
14. 박해남, ≪상촌 신흠 문학의 궤적과 의미≫, 보고사, 2012.
15. 申欽,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16. 심경호, ≪한국 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www.kci.go.kr

17. 蘇軾著/柳種睦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18. 蘇軾著/王文誥輯注, ≪蘇軾詩集≫, 中華書局, 1987.
19. 蘇轍, ≪欒城集≫, 上海古籍出版社, 1987.
20. 왕수이자오 지음/조규백 옮김, ≪소동파평전—중국의 문호 소식의 삶과 문학≫, 돌베개, 2013.
21. 王水照, ≪蘇軾研究≫, 河南教育出版社, 1999.
22. 袁行霈, 〈論和陶詩及文化意蘊〉, ≪中國社會科學≫ 第6期, 2003.
23. 趙翼, ≪甌北詩話≫(清嘉慶湛貽堂刻本)

＜Abstract＞

Su Shi(蘇軾, 1036~1101) wa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poets in the Northern Song(北宋) dynasty(960~1127), until now most of his poems are very influential, and he occupies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His poems were introduced into Koryo(高麗) during his lifetime. After that, his poems were widely read by the poets of Koryo and Chosun(朝鮮) dynasty(1392~1910).

But in the middl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admiration for Su Shi declined with the appearance of Korean neo-Confucianists. Following the neo-Confucianists of the Song dynasty, they criticized both Su Shi's academic theory and his literary character, but I found Shin Heum(申欽),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Korean neo-Confucianists, wrote some responding poems to Su Shi's(和蘇詩). Shin Heum did not write much responding poems to Su Shi's, but we can say the fact that he had written some responding poems to Su Shi's in spite of being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Korean neo-Confucianists is considerably meaningful,

www.kci.go.kr

because other Korean neo-Confucianists of this period disliked Su Shi and his poems.

Key Words : 申欽(Shin Heum), 蘇軾(Su Shi), 和蘇詩(responding poems to Su Shi's), 朝鮮(Chosun), 성리학자(neo-Confucianist)

www.kci.go.kr

www.kci.go.kr